

세상은 두 길, 성경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마7:13-23

행20:28-31, 사도 바울의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

내부 외부의 적들을 간파하고 양들을 지켜야 한다.

2024 로잔 대회 이후에 종교 통합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

한국에서는 이미 WCC, 내년에는 WEA총회가 열린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이제 돈이 좀 있다고 세상에 돈 사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Only One way 책을 중심으로 성경과 타 종교 혹은 세상을 비교하는 설교 시작(*)

총 6장,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백성, 한 구원자

오늘 시리즈 마지막 < >

세상은 One이라는 말을 무척 싫어한다.

그런데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One이다.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

신6:4, 엡4:3-6

왜 세상은 '한'을 싫어할까?

포스트모던 시대, 절대적인 것이 없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1950년대 이후 약 70년이 지나면서 2시대가 흘러갔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를 말하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말한다. 즉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증오 발언이라는 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 보호, 맞는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사상 포용, 김일성주의자도 공무원 가능,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증오 발언 심지어 전도도 못하게 된다.

미국을 보라.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만들지 않는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종교 통합에 가장 앞서 있고 주도하는 단체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다. 계17-18장의 바빌론 음녀 카톨릭 교회, 무천년설 주장, 왜? 교회가 이스라엘로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런 생각이 어거스틴 이후 무려 1600년 동안 카톨릭 교회와 여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장악해야 한다. 문화 전쟁을 벌여서 세상을 따라오게 해야 한다.

그러고는 세상의 것들을 도입하여 록 뮤직(경배와 찬양), 만트라, 요가, 명상, 뒤로 쓰러뜨리는 접신 행위, 긍정적 사고 등으로 성도들을 무지와 파멸로 이끌고 있다.

다수의 대형 교회들, 구원파 교회들, 로마 교황 체제(우두머리 하나), 바지 사장 목사 지교회, 모든 헌금 등 다 모교회에서 처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성경의 신약 교회 형태가 아니다.

다 어디서 배우고 있나? 천주교에서.

금요일에 천주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발언, 오늘 아이들, 청년들도 있어서 잠시 다시 반복하고 왜 우리는 오직 한 길 그리스도와 성경을 따라야 하는가를 설명하겠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들어보자.

타 종교에도 구원

2015년 10월 28일(*)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있음을 천명하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장을 열어주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후부터 진행되어 옴

<https://news.cpbc.co.kr/article/601735>

진화론 빅뱅 옳다(*)

2014년 10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진화론과 빅뱅이론이 맞지만 이것이 하느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황은 28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 생명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달했다는 생각이 가톨릭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dpa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https://www.viva100.com/article/201410293685380>

지옥은 없다. (*) 영혼 멸절

2018년 3월 29일

인터뷰에서 "죽음 이후에 참회한 영혼은 신의 용서를 받고, 그의 응시 범위에 합류한다. 반면, 참회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라진다"고 말했다.

마리아는 우리를 대변해 주는 어머니 (*), 증보자

2016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이십니다. 아버지도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고통의 순간에 빛을 주십니다. 진실된 순교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픔의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빛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 순간부터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 주셨으며, 이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대변하시는 어머니이십니다."

2023년 12월 19일

동성 커플 축복 (*)

교황청은 2021년 2월 '동성 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는 교리를 선언한 바 있다. 이번의 새로운 선언문을 통해 옛 선언은 대체됐다.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선언문에 서명해 공식 승인했다.

2024년 2월 13일(*)

글라렛 선교 수도회 소속 이승복 신부가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여성 동성커플 두 쌍을 위한 축복 기도를 올렸다.

천주교의 수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인가?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두 길, 두 나무, 두 부류, 두 기초

마5-7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님의 침례, 공생애 사역, 최초의 선포 회개하라...(마4:17)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

마5-7장은 1차적으로 왕국 백성의 특징, 영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13-26절은 오늘의 주제를 정확하게 말한다. 두 길, 두 나무, 두 부류, 두 기초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즉 결론이다.

두 길(13-14)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3-14절이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wide and broad) 저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대다수 세상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자들, 교황, 마더 테레사 같은 자들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strait and narrow)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찾는 자들이 적다. 왜?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의 죄성: 자기 뜻대로 다른 이의 판단을 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

눅13:23-24, 23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4)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왜 들어갈 수 없나? 자기 방식으로 들어가려 하므로

교황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 진화, 지옥 부인, 마리아 숭배, 타종교 구원 주장 예수님의 말씀 마18:3,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대개 아이들은 미숙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원한다. 오직 그것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원해야 한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고 작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요3:3-5

요1:12-1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자랑거리 선행 직위 모두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므로

그래서 찾는 자들이 적다. 진리 탐구 노력해야 한다. 그냥 하나님이 좁은 길로 데려가지 않는다.

두 나무(15-20)

좋은 나무, 나쁜 나무(변질된 나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먼저 17-18절을 보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좋은 나무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여전히 나쁜 나무이다.

그 열매가 바로 성화이다.

16절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20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보이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사과나무는 자연히 사과를 맺는다. 시간이 가면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위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종교적 행위, 열심, 결국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고후13:5,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나쁜 나무의 특성: 위장의 명수(15)

대표적인 사람: 교황, 종교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눅6:26).

두 부류의 사람들(21-22)

21절: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부른다.

즉 교회에 나가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좁은 길로 들어선 자들만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들의 특징,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 말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대로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다수는 주여 주여 하면서 넓은 길로 간다.

이적, 표적,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 천국 지옥 간증, 돈을 긁어모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주님의 무서운 판단: 23절

두 기초(21-22)

좁은 길, 넓은 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두 부류의 사람들

왜 이런 구분이 생기는가? 기초를 잘못 세워서 그렇다.

24절: 좁은 길, 좋은 나무, 천국

성경대로 믿는 자는 기초를 바위 위에 세웠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25).

26절: 넓은 길, 나쁜 나무, 교회 다니고 능력을 행하고도 지옥

성경대로 구원받지 않음, 나쁜 열매,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움

사람들의 칭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부흥, 각종 프로그램 도입

이 땅에서는 유명하게 되고 직분을 맡은 사람일지 몰라도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한다(27).

즉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말 고전3:10-17, 설명

결론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행4:12,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서 있는가?

그 기초를 바르게 알려면 가능한 한 바른 성경을 써야 한다.

한 군데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기초 위에 섰다는 말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섰다는 말이다. 핏박이 있다는 말이다.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아이들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길이 좁고 험악하다. 즉 믿음 지키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나무라 삶에서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모두 성경대로 한 길, 한 하나님, 한 진리, 한 구원자를 믿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와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요셉,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주어진 용기, 믿음, 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원한다.